

민주당 '여권 프리미엄'이나...국민의당 '혁신 공천' 승부수나

지방선거 1년 앞으로 ... 관전포인트·변수는

민주당, 文정부 첫번째 평가... 예비주자 경쟁 치열

국민의당, 신진 인사 적극 발굴 새바람 동력 발판

정치적 변수 많아 호남 민심 놓고 사활 건 총력전

6·1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선 호남 민심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국정 동력 확보는 물론 여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데다 지난 총선에서 뺏긴 고도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한다면 당의 존립기반이 뿌리 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변수 등을 조명해봤다.

◇여권 프리미엄=지난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여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선 기간 동안 약속했던 호남 인사 중용 등을 통해 화답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프리미엄을 등

에 업은 민주당 주자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첫 번째 평가의 장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호남 민심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발전이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 경선을 놓고 예비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혁신 공천 승부수=국민의당에서는 기존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의 실패는 총선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동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민심이 지난 대선에서 30%의 지지율을 보여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패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30%의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국민의당에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내외에서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혁신 공천으로 지방 선거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직과 분위기 측면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혁신 공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을 흔들지 않고는 반전의 계기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광역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신진 인사들을 발굴, 전격적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들도 지역적 기반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혁신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혁신 공천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변수 많아=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변수는 아직도 많다.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일당 독식 구조 타파가 가져오는 효과를 체험했다. 경쟁이 부작용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구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일당 독식 구조 타파가 가져오는 효과를 체험했다. 경쟁이 부작용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지방선거가 1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정국의 변화 가능성도 크다. 협치가 깨지면서 여권의 실정이 현실화 될 수 있고 개헌 등으로 지방선거 정국이 급변할 수 있다. 여기에 전격적으로 연정이 이뤄지면서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방부 의장대원과 악수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방부 군약·의장 행사장을 방문해 해병 의장대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 '강경화 구하기' 총력전... 대통령까지 나선다

첫 시정 연설 앞두고 야당 지도부 만나 협조 부탁

전직 외교장관 10명 "강 후보자 적임" 지지선언

당청이 '강경화 구하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야당으로부터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이 지난 며칠간 계속됐다"며 "반드시 후보자 한 명은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의 고집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과정인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다"며 "외교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직 외교부장관 10명은 이

례적으로 "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의 적임자"라며 지지선언을 했다. 한승주·공로명·유종하(이상 김영삼 정부), 이정빈·한승수·최성훈(이상 김대중 정부), 윤영관·송민수(이상 노무현 정부), 유영환·김성환(이상 이명박 정부) 등 정권을 가리지 않고 힘을 보탰다.

특히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에서 "100% 흡결 없는 사람은 없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까지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진정성 있는 설득을 하면 비토 기류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야당부터 방문하시고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식사도 하셨다. 내일 시정연설 계기에 또다시 직접 만나 부탁할 수 있으니 일단 내일까지는 지켜보자"고 말했다. 앞선 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발표 형식을 빌려 국회에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야권 직접 설득이 후다.

청와대로서는 '최후의 수단'인 대통령의 대면 호소에도 야당이 꺾이지 않으면 결단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강 내정자 철퇴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부겸·김영춘·도종환·김현미, 현역 의원 불패 이어갈까

14~15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낙마 없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인방의 인사청문회가 14~15일 열리면서 '청문회 정국 2라운드'의 막이 오른다.

이번에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등 모두 4명이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데다 선거나 재선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의 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모두 통과했다.

이 때문에 4명의 후보자들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것이라 관측이 높다. 현재까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도 그리 많지 않아 야당도 파상공세보다는 정책 및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김부겸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김영춘·김현미 후보자는 각각 부당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도다. 도종환 후보자에게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재야 사학자들에 동조한 역사관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청문 정국 1라운드에서 형성된 여야 간의 냉각 분위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2라운드 청문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방문(12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문 대통령이 국회로 발걸음을 하는 만큼 경직된 청문정국이 풀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	------------	-----------	-----------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